

젊은이의 향학열이 불타는 곳

정기영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지난 6월 첫주 토요일은 공휴일인 현충일과 일요일 사이에 끼인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였다. 이런 날은 많은 사람들이 황금연휴 계획을 세워 일상에서 떠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은 이날 전례없는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맞아 그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고역(?)을 치렀다. 저녁에 집계된 도서관 이용자수가 6,400명이었으니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이용자가 다녀간 셈이다. 이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연휴를 도서관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280만책에 달하는 장서, 58만책에 달하는 학위논문, 그리고 708문종의 22만책에 달하는 족보류 고서가 소장되어 있고, 가장 앞선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와 그 서비스 등으로 해서 다른 어떤 도서관보다도 이용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50여명의 직원과 연간 22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모두 20여개의 자료실을 갖추고 이용자의 열람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중 연속간행물실·신문자료실·학위논문실·고전운영실은 자료의 보존관리상 폐가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외 자료실은 이용자가 서가에 꽂힌 책을 직접 찾아볼 수 있게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직원들은 이들 자료실 중에서 근무하기가 가장 고된 곳으로 학위논문실을 꼽는다. 도서관 자료의 이용빈도가 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실에서 근무하는 사서직원 한사람이 하루 평균 500책의 학위논문을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서 찾아주고 있는데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800책이 넘는다.

지난 현충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바로 학위논문실 이용자였다. 학위논문실 이용자들은 대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을 찾아보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찾는다. 국립중앙도서관만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에서 나온 석·박사 학위논문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위논문실은 선학과 후학이 만나는 곳이다. 선배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연구업적을 통해서 후학들은 선배를 만나고 학문연구의 지혜를 터득한다. 학원가의 데모, 젊은이들의 소비·향락행태를 두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면도 없지 않지만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진지한 향학열은 가슴 든직한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56만책에 달하는 학위논문들, 이 귀중한 연구축적들을 지금보다 더욱 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연구능률을 높이도록 개선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제로 학위논문도서관의 독립운영과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로 본문내용까지 PC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본다. ❖

초점	2	창고에서 잠자던 책들이 뿔다 대형서점 상설코너, 알뜰장터 등 재고도서 시장 형성
논단	4	재고도서 할인판매는 우리 모두를 결판낸다 - 김성재
집중취재	5	서서히 모습 드러내는 '출판메카의 꿈'
기획취재	6	출판관련 '상' 어떤 것 있나
화제의 출간	8	《을유문화사 50년사》 발간
베스트셀러 다시보기	9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 - 주명철
문학서론	10	소외계층의 삶 다룬 '검은 소설' - 황병하
책갈피 산책	11	《아프리카 동물기행》을 읽고 - 채인선
신간 읽기	12	에릭 홉스봄의 《극단의 시대》 - 이영석
인터넷 출판향해	13	인터넷은 실용적인 문명의 이기 - 이규성
출판화제	14	노익장 과시하는 원로들 저술 활발
	16	'다르게 살기' 이끄는 작은 책들
	17	《한국전통건축》 시리즈(전7권)
	18	품격 높은 외국소설 풍성한 가을
특집/에세이	20	한가위와 전통문화 최승범/박성래/심우성/인병선/ 김영재/조효순/주강현/주남철
출판계 소모임	24	출판계의 '등뼈' 서울출판인포럼
책이 있는 풍경을 찾아서	25	협성대 '성서고고학박물관'
서평	26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 최영진 서연호 《식민지 시대의 천일극 연구》 - 이상우
	27	이정우 《가로지르기》 - 윤평중
	28	웹스터 《정보사회이론》 - 강태완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 이수훈
	29	트윅카우스 외 《네안데르탈 1》 - 정영화
이 책 그 사람	30	《지리산》 펴낸 임소혁씨 《중군위안부》 펴낸 노라 옥자 켈러씨
	31	《두 얼굴의 유럽문명》 펴낸 강응현씨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 펴낸 변재란·최정현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16